

---

# 마음 무거운 날 산으로 가리라

## - 김광규의 '크낙산의 마음' -

김현자 · 문학 평론가 / 이화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

- ①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 ②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뭇잎 사이로  
살팽이 한 마리 지나가고  
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 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숲한 나무와 짐승들
- ③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 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질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④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 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 '크낙산의 마음' 전문

## 1. 산으로 가는 길

상징적 이미지와 복잡한 의미의 얽힘을 통해 숨겨진 심층으로 독자를 인도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쉽고 명징한 언어로 갈라진 정서를 채워주며 읽는 과정에서 어느덧 새살을 돋게 하는 시도 있다. 김광규의 '크낙산의 마음'은 후자에 해당하는 시이다. "다시 태어날 수 없어 / 마음이 무거운 날은 / 편안한 집을 떠나 / 산으로 간다"는 이 쉽고도 명징한 문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독자를 '치유와 재생의 산행'이라 부를 만한 시 읽기의 세

계로 인도한다.

시인이 가는 길은 크낙산으로 열린 길이다. '크낙산'이라는 시어는 '크다'라는 동사 또는 '크나큰'이라는 형용사에 어원을 둔 시인의 신조어로서 일상성을 단숨에 압도해 버리는 청정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또한 우리나라 광릉에 살았다는 세계적인 희귀조인 크낙새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겹쳐지며, 우리가 가야 할 '크낙산'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산을 넘어선 매우 특별한 곳이 된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감동의 요소나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인 관계의 문제에 관한 깊은 성찰은 주관과 정감을 바탕으로 한 시인의 자아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크낙산으로의 산행은 자연 자체에 내재하고 동시에 시인의 자아 속에 있는 어떤 지향성이나 작가 특유의 존재 의식을 탐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2. 집과 산의 공간적 대립

이 시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집과 산의 대립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을 따라서, 집에 속하는 나와 산에 속하는 자연 만물들이 의미상의 대립 구조를 형성한다.

- ① 다시 태어날 수 없어  
마음이 무거운 날은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간다

내가 편안한 집을 떠나는 이유는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며,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담담하지만 매우 절실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살아 있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싶은 순간은

삶과 죽음의 운명에 간혀 있는 인생의 비의(秘意)를 실존적으로 자각하는 순간이며, 안주와 일탈의 양면적 욕망에 간혀 있는 일상성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집을 떠나 산으로 가는 화자의 행위는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담담하면서도 냉철한 통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은 편안함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데, 이 편안함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든가, 무거워 가라앉는 것과 연관되면서 무게나 비가역적 질서 등의 인공적 세계를 형성한다. 거기에 속해 있는 나 역시 비가역적이고 단절적인 시간 속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이며, 단지 무거움이라는 물질적인 공간성만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이 시인이 찾아가는 산은 높이 솟아 있으면서도 하찮은 미물이나 벌레들의 본성인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가장 단순히 자연적인 세계이다.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삶과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생명의 모순은, 인간들에게는 쉽사리 허용되지 않는 관습이나 태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이 시의 산은 초월과 신성(神性)의 위용을 자랑하는 중심(中心)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집’이라는 장소와 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도 없고 중심도 없는 곳이다.

### 3. 소멸과 재생의 의미구조

‘크낙산의 마음’을 의미상의 단위로 나누어보면 크게 4개의 의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4행 ①이 집에서 산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5~14행 ②는 크낙산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크낙산 마루턱에 올라서면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

널려진 바위와 우거진 수풀  
 너울대는 굴참나뭇잎 사이로  
 살팽이 한 마리 지나가고  
 썩은 나무 등걸 위에서  
 햇볕 쪼이는 도마뱀  
 땅과 하늘을 집 삼아  
 몸만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 숲한 나무와 짐승들

“제멋대로”, “널려진”, “우거진”, “너울대는” 등의 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은 무질서하고 원시적인 세계이다. 즉 만물이 자신들의 존재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얽혀져 있는 공간이다. 자연은 도시의 반대개념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만물이 자신들의 존재 방식대로 피고 지는 곳이다. 노자의 자연(自然)의 개념을 굳이 빌려 온다면 어떤 목적의식과 무관한 ‘스스로 그러함’ 세계인 것이다. 자연이 스스로 그러한 세계이기에 5행에서 14행 사이에 드러난 바위며 수풀이며 살팽이와 도마뱀을 묘사하는 데서도, 시인은 그 하나하나의 사실적인 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연 속에서 만물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원리를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특별히 화해할 만하지도 않고 특별히 안락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생명의 원리에 따라 숨 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만물은 편안하지는 않지만 ‘넉넉한’ 것이 된다. 심지어는 땅과 하늘조차도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만물이 숨 쉬는 배경이고 터전이며 동시에 자연의 한 구성 요소로서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자연이 된다.

### ③ 해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꽃과 벌레들이 부러워  
 호기롭게 야호 외쳐 보지만  
 산에는 주인이 없어

나그네 목소리만 되돌아올 뿐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도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도  
 산에는 아무런 중심이 없어  
 어디서나 멧새들 지저귀는 소리  
 여울에 섞여 흘러가고  
 질푸른 숲의 냄새  
 서늘하게 피어오른다

15~26행 ③에서는 집과 산의 대립 아래서 궁극적으로 갈등하는 나와 자연 만물의 대립성이 부각된다. 현실적 삶이 내포하는 근본적 특성이 무거움이라면, 중심은 무거움의 개념에 의해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반면에 한갓 이름 없는 풀꽃이나 새들의 삶은 유유자적한 우주적 근원의 품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름 없는 풀 앞에서 “호기롭게 야호”를 외치는 화자의 모습은 무게와 중심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담담하면 서도 냉소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는 해마다 태어나고 죽는 생명체를 ‘부러워하고’ 주인이 된 듯이 ‘야호’를 외친다. 그렇지만 실상 산에는 봉우리도 골짜기도, 그리고 그것들의 중심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소리, 물의 흐름, 숲의 냄새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생명의 원리를 다할 뿐이다. 중심이 없다는 것은 경계가 없는 것이고 단절이나 억압의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소리와 냄새는 자유자재로 하늘과 땅을 넘나드는 것이다. 그러한 자연의 생명 원리에 비추어 보면 호기롭게 산을 제압해보려는 화자의 “야호” 소리는 사람은 왜 다시 태어날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자신의 생명의 원리대로 살지 못한 채 무겁게 중심을 잡으려 하고, 그 중심을 위해 욕망을 불태우기 때 문이 아니던가.

④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없고  
 바위틈에 엮드려 잠잘 수 없고  
 낙엽과 함께 썩어버릴 수 없어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  
 남겨둔 채 떠난다 그리고  
 크낙산에서 돌아온 날은  
 이름 없는 작은 산이 되어  
 집에서 마을에서  
 다시 태어난다

27행에서 35행 ④에서는 산에서 다시 집으로 가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난다. 시인은 집과 산, 나와 산의 대립적 의미 구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자연의 ‘스스로 그러한 생명의 원리’를 터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명의 원리란 바로 무계에서 벗어나는 소멸의 과정이다. 땅과 하늘,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의 대립성도 자연이라는 거대한 총체 속에서 변별할 수 없는 하나의 대우주로 통합되었고, 이 속에 내재하는 생명 역시 대우주의 곳곳에 “사뿐히 내려앉”거나 “잠”자거나 “썩어버”린다. 완전한 소멸만이 다시 태어남의 바탕이며, 크낙산이 넉넉하고 큰 산이 될 수 있는 비밀임이 드러난다.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면서 하늘의 공간도 땅의 공간도 생명을 잠재우고 무화(無化)시키는데, 이 철저한 무화에서 생명은 ‘서늘하게 피어오르게’ 되는 것이리라.

따라서 화자는 중심과 무거움을 버리고, 또는 소멸시키고 ‘작은 산’이 된다. 이것은 멧새나 살쾡이나 이파리들과 다른 사람의 존재론적인 재생의 방식이다. 무거움을 떨치는 순간 그는 치유되기 시작하며, 중심을 잡으려는 발버둥에서 벗어나는 순간 작은 생명으로 재생한다. 크낙산이 어미라면 화자는 그 어미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작은 생명이 되는 것이다.

산행의 종착점은 집과 마을이다. 인간의 삶은 늘 일상의 집안에 있으

며, 결국 산은 일상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먼 길이다. 시인은 삶에 대한 명징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쉬운 언어로 담담하게 들려준다. 음악적으로 고르고 단정한 호흡에 실려서 우리는 그의 산행에 동참한다. 인생에 대한 아이러니적인 냉소와, 생명의 신비로움에 대한 깊은 사색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삶의 깨달음까지를 무겁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시인의 호흡과 어조와 정서가 일관된 균형을 이루면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일상-비일상-새로운 일상’이라는 얼핏 보면 평이한 구성 역시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4. 크낙산의 마음과 시의 힘

우리는 모두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사는’ 꿈을 갖는다. 시인은 이 시에서 일상에 담담하게 갇혀 사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방법을 일러준다. ‘몸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무와 짐승들처럼 그들을 부러워하며 산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 역시 시인의 시를 통해 크낙산을 다녀온 이후,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시인은 크낙산을 통해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우리는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재생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시의 힘이 아닌가? 집과 마을, 그리고 산. 이 시를 읽음으로써 새로운 ‘나’는 세상의 모든 공간에서 무수히 태어날 수 있다.